

요 약

■ 정치 및 경제 현황

- 2007년 10월 총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시민강령당(PO)은 폴란드 농민당(PSL)과 연정을 구성하여 과반수 의석 확보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, 자유주의 성향의 PO당은 EU의 통합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- 대통령(법과정의당)과 총리(PO당)는 외교·국방정책 부분에서 갈등을 표출(리스본조약 비준, 폴란드군 이라크군 파병 문제 등)하고 있으나, 2009년 6월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PO당이 승리하며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수출 증대 및 내수 호황으로 인해 2006~07년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,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 중부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타격을 가장 적게 받은 국가이며 2009년 중반부터는 외환금융시장 불안이 상당히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.
-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세 둔화로 경상수지 등 대외거래 포지션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2년 예정인 유로존 가입이 지연될 전망이지만, 2009년 4월 이후 유로채 발행 성공, IMF의 예방적 차원의 자금차입 등으로 국가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.

■ 산업동향

- 폴란드의 GDP 대비 산업별 산업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서비

요 약

스업 64.7%, 광공업 31.3%, 수산업 4.0%를 나타내고 있으며,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수출 호조와 내수 증가,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급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.

- 자동차산업: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1990년대 말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주요산업으로 서유럽 전체 승용차의 8%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, Fiat, Opel, Volkswagen 등 유럽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진출해 있음. 1천개 이상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보유하면서 자동차부품 및 엔진 제조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화학산업: 폴란드의 전통산업으로 EU 가입에 따른 기후변화, CO₂ 배출, 생물연료 등 환경규제 및 EU 기준 강화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며, 생산실적은 총산업의 10%를 상회하여 EU 전체의 10위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인구도 23만 명 이상으로 제조업의 8%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.
- 전자·통신 산업: 가전제품, 통신부품설비를 중심으로 전자제품의 생산실적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내수시장에서는 통신부품설비,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음. 정보통신 시장규모는 EU 전체의 7위에 달하며 휴대폰, 인터넷 등 통신부품 및 네트워크서비스 산업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건설업: 최근 몇 년간 폴란드 내 가장 급성장한 산업으로서 건축, 교통인프라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 분야가 건설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. 특히, 폴란드가 EU 가입이후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

요 약

으로서 동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.

■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

- 2004년 5월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 관계당국은 수입관세 인하 등 EU 규정에 부합하는 각종 투자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였으며, 특별경제지대(SEZ) 등 투자인센티브, 투자절차에 대한 행정지원, 조세감면, 보조금 지급, 기술지원 대출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
- EU 가입이후 수입관세 인하, 현지금융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조세 및 노동제도가 아직까지도 복잡하여 기업경영여건과 관련하여 개선 여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 실제로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(IFC)의 기업경영여건 및 세계경제포럼(WEF)의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 평가에서도 법인설립 절차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, 폴란드는 2007~13년간 배정된 EU 기금 중 673억 유로를 할당(최대 수혜)받게 되며, 동 기금은 인프라 및 환경, 지역개발, 인적자원 운영 프로그램(Operating Program) 등의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고 외국인투자자의 동 기금 활용 가능성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.

요 약

■ 한-폴 경제 교류현황 및 협력방안

-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제25위 수출상대국(우리나라는 폴란드의 15위 수입상대국)이며, 우리나라는 대 폴란드 출초(出超) 구조를 지속하고 있음.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41억 달러, 수입은 3억 달러이며, 수출품목은 전자제품, 통신기기, 자동차부품 등이며, 수입품목은 자동차부품, 기계부품, 육류 등인 것으로 조사됨. 현재 진행 중인 한-EU FTA 체결협상이 완료되어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.
-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7위(선진권 제외) 수준의 주요 투자상대국이며, 자동차 및 전자제품관련 제조업이 투자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. 폴란드 정부는 자동차, R&D, 식료품,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데, 폴란드투자청(PAIIIZ)에 따르면, 자동차부품, 에너지, 전자부품 및 소재산업 등의 분야에 우리기업이 투자하기를 희망함.
- 우리나라와 폴란드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 증진 및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기본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임. 이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자동차산업(부품 및 그린수송 시스템), 인프라, 에너지 및 환경산업(가스터미널 및 원전), 건설업(도로 및 철도), 유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, 시장수요예측, 투자환경위험 등에 대한 현지투자를 위한 사전점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